

**담당 : 홍보팀 송다혜 사원ㅣ Office : 02)560-4448 ㅣ Mobile : 010-7680-3103 ㅣ E-mail : media@klpga.org**

**배포 일시 : 2025년 6월 22일(일) 20:10 ㅣ 보도 일시 : 2025년 6월 22일(일) 20:10**

**‘더헤븐 마스터즈’ 우승자 노승희 관련 기록 및 코멘트**

**◈ 대회개요**

|  |  |  |
| --- | --- | --- |
| 1 | 대 회 명 | 더헤븐 마스터즈 |
| 2 | 기 간 | 2025년 6월 20일(금) ~ 6월 22일(일) |
| 3 | 장 소 | 더헤븐 [West(OUT) / South(IN) 코스] |
| 4 | 주 최 | 더헤븐리조트 |
| 5 | 주 관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
| 6 | 총 상 금 | 10억 원 (우승상금 1억 8천만 원) |
| 7 | 코스길이 | 파72 / 6,631야드 |
| 8 | 참가인원 | 120명 |
| 9 | 주요  출전선수 | 배소현, 이동은, 박보겸, 김민주, 김민선7, 홍정민, 박현경, 정윤지, 유현조  박지영, 지한솔, 서어진, 김시현, 서지은, 송은아, 박희영, 박서진(A) 등 |
| 10 | 중계방송 | SBS골프, 네이버, 다음카카오, U+모바일tv |
| 11 | 방송일정  (생중계) | [1라운드] 11시 ~ 17시  [2라운드] 11시 ~ 17시  [최종라운드] 10시 ~ 16시 |

**◈ 노승희 최종합계 13언더파 203타(70-67-66) 우승**

**[상세 프로필]**

<https://klpga.co.kr/web/profile/mainRecord?playerCode=9113>

**[연장 기록]**

**스크린샷, 텍스트, 라인,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요 기록]**

**- 노승희 통산 3승 달성**

**\* 2024: DB그룹 제38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OK저축은행 읏맨 오픈**

**2025: 더헤븐 마스터즈**

**- 위메이드 대상포인트 8위, 상금순위 5위 등극**

**- 노승희 연장 전적 2승 1패**

**\* 2023: 제12회 KG 레이디스 오픈 노승희 패(vs 서연정)**

**\* 2025: 더헤븐 마스터즈 노승희 승(vs 이다연)**

**[2025시즌 기록]**

텍스트, 스크린샷, 번호, 평행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 기록]**

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멘트-대회 조직위 제공]**

**Q：오늘 연장전 끝에 우승하였는데 우승 소감?**

A : 오늘 시작할 때까지 만해도 우승 생각은 못했다. 최대한 오늘 버디를 많이 잡아서 순위를 끌어 올려보자고 생각했는데, 더 잘 치려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실수가 잦았다. 비우자고 생각 후 플레이했다. 연장 퍼트가 들어갈 땐 아드레날린이 퍼지는 느낌이었다.

Q：연장전 결정됐을 때 기분?

A : 스코어접수 하고 선두와 한 타 차이인 걸 알았다. 이다연 선수가 남은 홀에서 타수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연장 나갈 확률보다 못 나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으로 욕심은 부리지 않았다.

Q：오늘 유난히 샷감 좋은 이유??

A : 날씨가 더워지면 샷감이 좋아지는 편이다. ‘제17회 두산 매치플레이’ 때부터 샷감이 좋았고 미국에 다녀오고 나서도 공이 정타에 맞는 임팩트가 좋아졌다고 느꼈다. 퍼트 감만 따라 준다면 좋은 성적이 따라오겠다고 생각했다.

Q：연장 퍼트 들어갈 거라고 생각??

A : 티샷 때부터 마음을 비우자고 생각했고, 마지막 퍼트 때 어드레스 순간부터 들어갈 거라는 느낌을 받았다.

Q：시즌 첫 승인데 남은 시즌 목표?

A : 올해 목표는 상반기 첫 승이었다. 목표인 상반기 우승 이뤄서 기쁘고 남은 대회에서 2승 추가하여 3승으로 올해를 마무리하고 싶고, 남은 하반기 메이저 대회 우승 목표이다

Q：6년 차이다. 경력 쌓여가며 KLPGA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은가?

A : K-10에 입성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꾸준하게 리더 상단에 있는 선수로 기억해줬으면 좋겠다.